

“국악으로 한국불교음악 만들면 그것이 세계포교”

세계 3대 인명사전 중 2곳에 동시 등재된 박상진 동국대 한국음악과 교수

요즘 세계로 진출하는 한국문화는 퓨전 한복, 한국퓨전음식 등 크로스오버 또는 퓨전형태의 것들이 많다. 그러나 해외에서 선보이는 것일수록 순수 우리문화로만 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사람이 있다. 세계 3대 인명사전 중 2곳에 동시 등재된 박상진(57·사진) 동국대 한국음악과 교수다.

박상진 교수는 지난 3월 '영국 케임브리지 국제인명사전(IBC)의 21세기 탁월한 지식인 2000명 2011년판', '미국인명정보기관(ABD)의 21세기 탁월한 지식인 2011년판'에 각각 등재됐다. 두 기관 모두 자연과학, 의학 분야에서 인정받은 사람들이 등재되는 곳으로 한국의 국악인이 세계 3대 인명사전에 등재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박 교수는 서울시국악관현악단 단장으로 재임 중이던 2008년 9월 호주의 시드니 오페라하우스 콘서트홀에서 공연하는 등 국내외에서 국악 공연을 활발히 펼친 업적을 인정받았다. 시드니 오페라하우스에서 공연한 해외 민속악단은 서울시국악관현악단이 최초였다.

“외국에 가서 연주할수록 절대로 크로스오버나 퓨전형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오로지 국악기만으로 해야 합니다.”

순수 우리문화만 고집한 박 교수는 오페라 하우스에서 아리랑과 사물놀이, 경기굿·민요·판소리 등을 주제로 한 공연을 선보였고 호주 현지인, 원주민들과 협연해 10여 분간 기립박수를 받았다.

당시 오페라하우스 1800석 중 1500석이 매진될 정도(꼭대기 층이 3층이라 표를 판매 하지 않았다)로 큰 호응을 얻었다.

박 교수는 2003년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300주년 기념축하 음악회에 초청받아 아레메타쥬 박물관내 오페라하우스에서 우리와 같은 성원에 공연을 마쳤다.

“전 세계에 퍼진 700만 한민족을 하나로 묶고 이들이 기쁨이나 슬픔이나 부르는 노래가 무엇인지 아나고 청중들에게 질문했더니 러시아인들이 ‘아리랑’이라고 대답하더라구요. 공연이 끝나고 현지인 한 명은 ‘한국의 음악과 국악기 소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줄 몰랐다’고 극찬했습니다. 그럴 땐 국위선양을 한 것 같고 참 뿌듯했죠.”

서울대 음대 국악과를 졸업한 박상진 교수는 성균관대에서 동양철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인문학, 철학적 지식이 바탕이 돼야 창조적인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였다. 이러한 경험은 전라북도도립국악관현악단, 대구광역시국악단의 상임지휘자로 있을 때 독보적인 실력으로 발휘됐다. 판소리의 고장인 전라북도의 판소

리를 가지고 최초로 창극을 만들었고 가사만 남아있는 신라향가에 곡을 붙여 국악관현악을 선보인 것이 그 예다.

‘아제아제’ ‘뽕다’ ‘국악찬불가’ 등 불교음악도 제작한 그는 찬불가 제작에 지원 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는 조언도 아끼지 않았다.

“글로벌화 시대에 서양스타일의 찬불가를 만들어봤자 서양문화내부에 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국악으로 한국불교음악을 만들면 그게 바로 한국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것이고 한국불교를 알리는 것입니다.”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인사동 찾지에서 박상진 교수의 삶과 음악·불교이야기를 들었다.

국악과의 인연은 언제부터인지

“초등학교 때부터 음악을 엄청 좋아했다. 특히 성악 하는 것을 좋아했다. 고등학교 입시 때 우연히 학원잡지를 보다가 서울국악예고(現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홍보사진을 보고 멋지다고 생각해 지원했다. 이후 남학생 중에서는 처음으로 서울대 음대에 입학해 대금을 전공했다. 처음에는 음악을 한다고 집에서 반대를 하기도 했지만 서양음악도 아니고 우리음악을 하는 것이기에 편지를 갖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니 나중에는 적극 지원해주셨다.”

불교와 인연은 어떻게 맺었는지

“1977년 군 복무 중일 때는 개신교였다. 전방에서 복무 중이었는데 아끼던 소대원이 자살했다. 정신적으로 방황하다 1979년 불광사 광덕 스님의 ‘모두에게 불성이 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과 관련한 법문을 듣고 감동을 받고 불광사에 다니기 시작했다. 광덕 스님은 “지혜로운 달빛이 온누리에 비치듯 불교음악으로 온누리를 평화롭게 하라”며 해월(慧月)이라는 법명을 지어주셨다. 이후 신행활동, 불교음악 및 찬불가 활동에 열심히 참여했다.”

찬불가 작업에도 많은 참여를 했다

“찬불가 지휘를 하면서 찬송가풍의 찬불가가 많다는 걸 느꼈다. 찬불가의 작곡가 대부분이 서양음악을 전공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다. 한국기독교는 1980년대 기독교세계대회를 열면서 ‘다른 나라는 민족적 특색을 살려 찬송가를 부르는데 한국만 서양 찬송가를 부른다’고 지적했다. 이후 기독교의 토착화를 위해 국악 찬송가를 만들어내기 시작했다. 그런데 오히려 불교는 거꾸로 가고 있다. 찬불가를 국악



스타일로 만들어야겠다는 인식이 없다. 1990년대 초 불교방송에서 종교음악제를 개최했는데 불교음악을 담당했다. 개신교, 가톨릭과 차별화되는 음악을 만들려고 한국적 멜로디, 국악적 요소가 들어가도록 작곡가들에게 의뢰했다. 4-5년을 이 작업에 몰두했던 것 같다.”

찬불가가 고루하다는 지적도 있다

“찬불가를 재밌게 표현하려다 보니 경박스럽고 불교적으로 표현하려다 보니 느리고 지루한 감이 있을 수 있다. 이것은 고민해야 할 부분이다. 그리고 작곡에 따라 장엄하게 또는 경쾌하게 만들 수 있는데 작풍성이 떨어지는 찬불가가 많은 것도 사실이다. 주로 서양음악을 전공한 작곡가들이 찬불가 작곡도 하는데 금전적인 부분 등의 대우가 좋지 않으니 신경을 덜 쓸 수밖에 없다. 기독교에서는 찬송가를 만드는 사람들에 대한 대우가 좋는데 불교에서는 그러하지 못하니 딱 그 정도 수준에 맞는 작품이 나오는 것 같다.”

젊은 세대들에게 찬불가가 어필 하려면?

“종교음악이라고 해서 한 장르에 국한시키지 말고 젊은이들에게 맞는 랩음악, 여러 가지 음악 장르의 구별 없이 다양하게 시도해야 한다.”

꼭 이루고 싶은 것이 있다면

“불교를 바탕으로 한 한국을 대표하는 공연들을 개발해 상시 연주할 수 있고 공연할 수 있는 무대가 필요하다고 느낀다. 이는 포교와도 연결되기 때문이다.”

글=이은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박상진 교수는...

1954년생, 서울국악예술고 졸업, 서울대 음악대학 국악과 졸업, 동국대 한국음악과 정교수, 서울시국악관현악단 단장 겸 상임지휘자, 현대구광역시립국악단 예술감독 겸 상임지휘자, 현대국대 예술문화진흥연구소장, 국악관현악곡 ‘위도따뜻 높이를 위한 서곡’ ‘만인의총 제레악’ ‘무문관’ ‘관음제일’ 등 작곡, 국악가요 ‘열반가’ ‘관음송’ ‘열반의 노래’ 등 작곡, ‘아제아제’ ‘뽕다’ ‘보현행원송’ ‘국악찬불가’ ‘비발디 사계’ 등 음반발매.

불기 2555년(2011) 신묘년 부처님 오신날 ‘함께하는 나눔 실천하는 수행’

한국육조선원

한국육조선원 방장 석연화

부원장 : 청산, 법봉, 해봉, 일웅, 원덕

원로위원 : 지암 대선사, 건우 대선사, 선담 대선사, 도선 대선사

자문위원 : 금봉, 정진

운영위원 : 정원, 지원, 보당, 태운, 월암, 경천, 해일, 보광, 자인

총무국장 선호 총무부장 해천 감찰부장 오성 비구위원장 자문 비구니부위원장 혜명

◇ 육조선원(용화사) 금강계단

전계아사리 연화 대화상
교수아사리 정암 대화상
갈마아사리 청암 대화상
설계아사리 법광 대화상

◇ 존증사(칠중사)

법봉 대선사, 청산 대선사
일웅 대선사, 금봉 대선사
중섭 대선사, 해문 대선사
자운 대선사, 자인 대선사

◇ 선원장

부산 은진선원 지암 대구 수미선원 도관
충북 천지선원 선담 경남 도솔선원 정원
원주 보림선원 해일 인천 화엄선원 보광
전남 만덕선원 법장 포항 은혜선원 대산
경북 원각선원 원각 울산 회망선원 자운
서울 도선선원 도일 경기 보현선원 영사
김포 무량선원 무량 군위 지장선원 해봉
정읍 은곡선원 은곡 강원 길상원 혜선

대한호국불교소림선종

명예종정 승산 소림사 방장 석영신

총무원장 석연화

원로위원장 돈오 운영위원장 선담
총무국장 동일 홍보국장 도명
사무국장 선호 감찰부장 정원
사무실장 무영 연수위원장 남륜
총무부장 해천 복지위원장 혜명
비구위원장 자인
비구니부원장 종니, 혜경

경기교구장 해봉(옥천선원) 충북교구장 연동(금강사)
인천교구장 보광(화엄정사) 원주교구장 해일(보림사)
경남교구장 자운(희망사) 영산교구장 해문(대용사)
경기동부교구장 수월(수월선원) 경남서부교구장 도명(구화정사)
강릉교구장 수인(청룡사) 경북교구장 금봉(길상사)
본사(용화사) 주지 해암 본사(용화사) 해광 총무

중국광동육조사 한국육조선원 한국선불교학회 해능국제불교대학

주소 : 강원 원주시 귀래면 용암 2리 산 247번지 용화사
전화 : 033)761-7008, 766-2556 / 서울사무소 02)766-6800

총무원 02)766-6800, 766-6900
본찰 용화사 033)761-7008, 766-2556, 011-285-6800